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엔 “朴 우세” 저출산 등 주제별 각론엔 “文 우세”

■ 박·문 마지막 TV토론…전문가들 평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16일 저출산·교육·사회안전·과학기술 등의 주제로 열린 3차 TV토론판 관련, 자당 후보가 우세한 토론을 벌였다고 자평했다. 이날 토론은 통합 진보당 이정희 후보 사퇴로 대선 사상 처음 양자 대결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문 후보가 상대적으로 주제별 각론에서 우위를 보았다고 평가를 내린 반면, 박 후보는 정책이나 공약의 실현 가능성 면에서 나았다는 평을 내놨다.

박 후보 측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저 없이 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도 좋다는 확

비된 후보, 경륜 있는 후보, 품격 있는 후보라는 면모를 발휘했다”며 “문 후보와 1대 1로 벌인 토론 대결에서도 박 후보는 여러 현안에 대해 실현성 있는 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 후보는 이번 마지막 토론을 통해 어떻게든 박 후보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곧잘 조바심을 드러냈다”면서 “박 후보는 어떤 훈련 없이 안정된 자세로 본인과 문 후보의 정책적 차이점을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박광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주저 없이 문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해도 좋다는 확

신을 갖게 한 시간이었다”며 “명쾌한 국정철학과 실천력 국정운영 능력을 자신감 있게 보여준 토론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문 후보는 상대후보 공약과 문제점, 소요재원까지 과학적 국정현안에 대한 인식의 깊이에서 상대 후보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줬다”며 “(박 후보는) 대표공약인 4대 중증질환 공약의 재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책 무지 후보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주제별로 엇갈렸다. 교육분야에선 양측 모두 특목고 폐지로 토론을 시작하다가 전교조 주제로 넘어갔고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실망스러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복지분야에선 공약 실현 가능성은 박 후보가 앞섰지만, 자료 준비 등에 선문 후보가 우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측 모두 국립립 어린이집 확충 등 세부 과제로 들어가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회안전 분야 토론에선 평가가 엇갈렸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문 후보가 최근 사회안전 분야 움직임을 잘 반영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 토론에 나서 박 후보보다 다소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두 후보가 이 분야 토론 도중 국정원 여직원과 새누리당 불법운동 문제 등 정치적 사안에서 맞부딪치면서 “수준 이하의 토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정재 전 전남대 총장, 허상만 전 순천대 총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 임현모 전 광주교대 총장 등 광주·전남 전·현직 대학총장들이 17일 광주 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대선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추미애 의원-광주지역 대학 전·현직 총장단-광주변호사회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호소



“호남이 뜰풀 둥쳐 정권교체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해야 후퇴했던 평화, 민생의 문을 열 수 있다”며 “응석받이 막내 아들(민주당)을 이단만 치지 말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호남이 키워준 민주당의 무기력에 호남민들이 허탈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호남의 한 표 한 표

가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강정재, 순천대 허상만, 광주대 김혁중 등 광주·전남 전·현직 대학총장 17명은 이날 “젊은 학생들이 목숨까지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찾아내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투표해서 나라를 구하는 이 시대의 의병이 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회 일부에서는 생

각이 올바르고 판단력이 좋은 대학생이나 20대 청춘들이 투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투표해서 취업이 더욱 잘 되는 미래를 만들고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구하자”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이날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소위 ‘투표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주들의 배려를 당부하고 나섰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광주고등법원 변호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이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에서 제일 가는 국민의 권리자 의무이므로 사용자들은 꼭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朴 서울서, 文 부산서 마지막 유세

최우선 공략지 막판 표몰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8일 서울과 부산에서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친다.

양측 모두 최우선 공략지로 삼고 있는 유세부처에서 막판 표몰이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후보가 부산·경남(PK)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일정을 잡고 있는 반면, 문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 부산으로 내려가는 정반대의 동선을 짠 점이 눈길을 끈다.

박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 전국의 권역별 거점을 두루 돌아다니는 원칙 아래 창원·부산·대전·서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유세 장소로는 서울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서울의 동서남북을 차례로 뚫고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은 수도권 젊은층의 표심과 부산의 지역민심을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보인다.

첫 유세를 부산에서 시작한 만큼 시종일관 PK 공략에 주력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민등록지인 부산에서 투표해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도 있다.

문 후보 측은 “베이스캠프인 부산에서 마지막 일정을 잡은 것은 어느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후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정희 전 대선 후보 5·18묘지 참배

“정권교체로 새 세상열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선 후보는 17일 “정권교체는 진보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이며, 우리는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후보는 대선 후보 사퇴 다음 날인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와 구묘역을 참배

한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민중들 앞에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후보는 “유례없는 역경을 딛고 통합진보당과 노동자, 농어민, 우리 민중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 일을 이를 앞둔 이 시점까지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우리 민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제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끝내고 희망의 미래를 이 자리에 계신 동지들과 함께 열 것을 오늘 영령들 앞에서 다짐한다”며 “진보의 미래를 여는 과정은 오롯이 우리 어깨 위에 있었고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전 후보는 방명록에 ‘5월 정신 계승하여 정권교체 이뤄내고 진보의 미래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박근혜 지지” 호소

새누리당 유수택(사진) 광주시당 위원장은 17일 “지난 선거운동 기간 새로운 광주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봤다”며 “박근혜 후보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왔고, 박 후보의 진정성을 알아줄 때가 됐다”고 박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진정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광주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선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의 역사를 호남민들과 함께 쓰고 싶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여야, 12월 국회 소집 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야는 17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표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선 다음날인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임시국회를 연다는 데 합의, 양당 공동으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과 28일 본회의를 개최,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민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기구주택(원룸, 투룸, 써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거장
- 청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2개월 매도가 8억5천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원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m²(725평) 평당 95만원
- 광장 청고용도로 접한
- 비어놓은 지상 1층 1563m²(468평) 평당 10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횡성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35858949.co.kr

경매 NPL물건

- 비법 배우면서 투자
- 소액/공동투자 가능
- 1인 1물건 추천
- 회비 550만원

투자자 모집

- 공동투자 하실 분
- 투자금 5천만원 이상
- 기간 : 1년 정도
- 법적 보장/지분 등기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 | |
|------------------|--------|
| ■ 공증문서 | ■ 대여금 |
| ■ 법원판결문 | ■ 운송료 |
| ■ 각종채권 | ■ 구상금 |
| ■ 물품대금 | ■ 공사대금 |
|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
| · 채무자 신용조사 | |
|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 |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